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 어디서 그 소식을 들었느냐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어디에서 그 소식을 들었느냐?”

問 如何是西來意 師云 什麼處得消息來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은 달마가 서쪽 인도에서 올 때 가지고 온 부처님의 뜻을 말한다. 본 <조주록>에 이 질문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선객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도에 근접한 선사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조주 선사는 오는 사람에게 매번 다 똑같은 답변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 다르게 대답했다. 이것이 바로 활조의 지시이다.

나는 예전에 통도사 조실을 참방한 적이 있었다. 당시 조실스님께 “왜 요즘 우리나라 선사들은 옛사람의 공안만 똑같이 읊나?”하고 묻는 적이 있었다. 그랬더니 조실스님은 “그것이 가장 적합한 것이라서 그러는 거야”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조실스님이 내게 다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알게 되었다.

하두는 어떤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대답도 정해져 있지 않다. 그릇에 맞게 활용할 뿐이다. 조주 스님은 ‘조사서래의’에 대해 묻는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대답했다. 이번 질문도 “도대체 어디에서 그따위 소리를 들었느냐?”고 되물음으로써 학승에게 뭔가 가르쳐주려고 했다. 이 조주 스님의 뜻을 내게 묻는다면, 나는 주장자 1

방을 내리겠다. 이제 알아들었는가?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세속 사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다염전(茶·塩·錢)을 보시해 주려고 오네.”

問 如何是塵中人 師云 布施茶鹽錢來

불교는 평등을 말하는 종교이다. 그런데 평등이라 하여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불교의 평등은 다름 속에 평등이다. 사람은 사람의 인생을 살고, 동물은 동물의 생을 사는 것이 평등이다. 예를 들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과학자가 되는 것은 평등한 일이다.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것 또한 평등한 일이다. 도에가가 그릇을 굽는 것이 평등이고, 스님은 탁발해서 먹고 사는 것이 평등이다. 만일 그들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불평등이다.

사람이 각자 하는 일이 다르지만, 평등하게 대접하고 평등하게 존중받는 정신이 불교의 평등 정신이다. 설사 누가 청소부의 일을 한다고 낮은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이나 총정이 되었다고 높은 사람이 아니다. 부처님이라고 위대하고, 중생이라고 하찮다고 생각하면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가 누구이건 무엇을 하는 사람이건 평등하게 대하고 평등하게 존중하는 정신이 평등정신이다.

학인이 무엇이 ‘세속에 있는 사람’ 이냐고 물어보았다. 조주 선사는 “그들은 차나, 소금이나, 돈을 보시하려고

오는 사람일뿐”이라고 간단히 대답해버렸다. 그렇다. 세속인은 승려들에게 다염전을 보시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세속인이 승려에게 할 일이다. 세속인은 승려를 부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공양을 올린다. 그리고 승려는 세속인을 위하여 모범되는 행동과 좋은 법문을 들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평등이다.

학승이 물었다.  
“대이 삼장이 세 번씩이나 국사(國師)의 소재를 알려고 했으나 결국 알아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만 도대체 국사는 어디에 계셨던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삼장의 콧구멍 속에 있어.”

問 大耳三藏第三度覓國師不見 未審國師在什麼處 師云 在三藏鼻孔裡

여기서 국사는 남양 혜충(南陽 慧忠) 국사를 말한다. 대이 삼장(大耳 三藏)은 인도에서 온 삼장법사였다. 대이 삼장은 타심통을 얻은 사람이었는데, 세 번씩이나 혜충 국사를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학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조주 스님에게 도대체 국사가 어디에 있었기에 찾을 수 없었느냐고 묻는 것이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삼장의 콧구멍 속에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 뜻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대이 삼장은 숨 쉬는 곳에 있다”고 말하겠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9



# 자유로울 수 있는 경지를 체득하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장로니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느 작가의 책이던가? 그런 이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정말, 그렇다. 나는 무엇을 사는가? 우리 이웃들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삶의 원동력에 대한 이 화두를 다시 되새겨봄 직하다.

돈? 명예? 권력? 사랑? 혹은 자기 실현? 저 옛날 인도의 성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다녔다. 결국 겉으로 된 양파껍질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 왔다. 제일 밖에 있는 껍질은 음식(anna)이다. 먹는 것은 물질이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리라. 돈 때문에, 돈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단계에 속하리라. 다섯 번째 껍질을 벗기고 나면 남는 것은 바로 기쁨(ānanda)이다. 가장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 즉 진실한 자기(atman)를 만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본 것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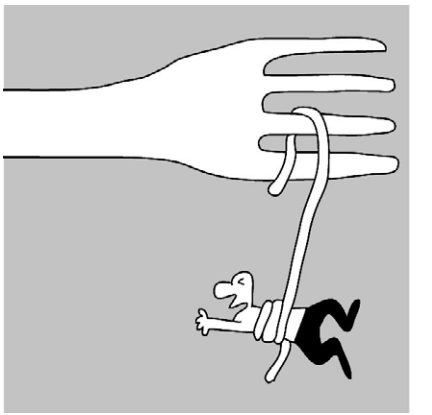
<우파니샤드>라는 책을 남긴 사람들의 사교가 그랬다면,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 자유! 자유라고 말한다. 의외가 아닌가? 우리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지만 한다면 아무런 불만이 없을 것으로 쉽게 생각해 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모든 외적 조건이 잘 충족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유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하다 할 수 있을까.

<비구니의 고백(Therigāthā)>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한 여인이 있었다. 이미 두 번이나 결혼에 실패했다. 친정에 와 있는 딸이 안쓰러웠던 아버지, 오죽 답답했을까. 탁발을 온 한 수행자를 포섭한다. “당신이 내 사위가 되어 주십시오. 누더기와 발우는 버리고” 이 아버지의 애절한 심정에 공감되었던 것일까, 신부지 참금에 현혹된 것일까, 아니면 미모의 여인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일까. 이 탁발 수행자는 누더기와 발우를 버렸다. 그 불행한 여인의 세 번째 남편이 되어준다.

그런데 이 탁발 수행자는 오래 결혼생활을 지속하지 못한다. 겨우 반달이나 지났을까. 장인에게 말한다. “저의 누더기와 발우, 물병을 돌려주십시오. 먼저처럼 탁발생활을 하겠습니다.” 결혼생활이 어땠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로서도 그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리라.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여

인의 아버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해주지 않은 일이 무엇이 있는가?” 항변하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 더 할 일이 있다면 솔직히 말해주게”라며 사위를 불들고자 했다.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경지를 체득하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의 대답이었다. 다른 것은 다 공급할 수 있었지만, 이 자유만은 공급해 주지 못한 여인의 아버지는 더 이상 이 수행자를 잡지 못하였다. 그뿐이던가. 딸마저 그 자유를 향하여 떠나려고 한다. 이미 그 여인은 세 번이나 결혼을 실패하지 않았던가. 남자, 라는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스스로의 행복을 세우려는 시도는



실패임이 분명해 졌다. 독립하기로 한 것이다. 이 분이 바로 이시다시 비구니이다. 스님은 “출가한 지 7일 만에 세 가지 밝은 지혜를 얻었다.”

<비구니의 고백>(민족사, 297쪽)을 읽으면서, 나는 이시다시 스님의 이야기보다도 탁발수행자였던 남편이 다시 길을 나서면서 외친 이 절규에 더 오래 붙들려 있었다. 그 절규가 내 마음을 쳤다. 그가 추구한 자유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해탈을 뜻하는 것이리라.

하지만 내게는 또 다르게 읽혔다. 즉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 중에 음식 등의 물질적 조건과 자유라는 이름의 정신적 조건이 다 필요하다는 것. 아니, 아무리 물질적 조건이 잘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신적 조건인 자유가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외부적 조건으로만 사람들을 움직이려 하는 것 아닐까.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4>

붓다 최초 설법 사성제

# 꿈에서 벗어나 해탈로 가는 네가지 진리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설법한 내용이 사성제(四聖諦)이다. 각자(覺者)가 된 부처님 법문이 처음으로 세상에 울려 퍼진 것이다. 최초의 가르침인 만큼 중요한 불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사성제는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가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으로, 고(苦)·집(集)·멸(滅)·도(道)를 가리킨다. 당시 인도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볼 때 병의 상태, 병의 원인, 회복, 치료방법의 네 단계로 나누어 진단했다. 부처님은 이러한 의학적 체계를 적용해 사성제를 설명했다. 즉, ‘고(苦)’는 병자가 몸에 병이 들어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과 같고, ‘집(集)’은 병의 원인이며, ‘멸(滅)’은 병이 치료된 상태이고, ‘도(道)’는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네 가지는 부처님에 의해 진리로 선언됐다. 진리는 사성제의 ‘제(諦)’에 해당되며 산스크리트어 사트야(satya)의 한역이다. 사트야는 ‘어떠한 것도 반드시 실현되는 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은 현실 세계가 괴로움이라고 하

는 진리[苦諦],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애착이라는 진리[集諦], 괴로움을 극복한 해탈이 존재한다는 진리[滅諦], 해탈로 가는 방법이 있다는 진리[道諦] 이렇게 네 가지 진실이 현실세계에서 실현되고 있고, 실현할 수 있다는 선언이었다. 부처님은 이 네 가지 진리가 인과관계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원인과 결과의 과정을 통찰해야만 네 가지 진리를 바르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제는 인간이 괴로움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태를 바르게 직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살아가면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괴로움을 판단할 때도 있고, 타인의 괴로움을 진단할 경우도 있다. 어느 쪽이든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괴로움을 괴로움이 아니라 생각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데 고뇌하는 것은 바르게 괴로움을 통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집제는 괴로움의 원인과 이유를 제대로 간파하는 것을 말한다. 괴로움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생기지 않는다. 괴로움이 외부에 의해서 생긴 것인지, 마음속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양쪽 모두에서 유래한 것인지를 바르게 관찰해야 한다. 또 그 괴로

움의 원인은 ‘욕심’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멸제는 괴로움이 사라진 이상적인 상태를 뜻한다. 즉 열반의 상태이다. 열반의 상태는 고제와 집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이다.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 멸제로 도달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도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론이다. 괴로움의 직접적인 원인인 ‘집(集)’을 제거함과 동시에 고와 집을 일으키지 않는 환경과 심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 이 방법론이 바로 정견(正見)·정어(正語)·정업(正業)·정명(正命)·정념(正念)·정정(正定)·정사유(正思惟)·정정진(正精進)의 팔정도(八正道)이다.

팔정도는 열반에 도달할 수 있는 원인을 만드는 수행방법이다. 팔정도의 수행은 괴로움을 없애가는 과정으로, 예를 들어 폐병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단지 결핵균만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치료 후에 영양을 보충하고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게 해서 회복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前 본지기자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극요법술



**매월 지장재일은  
무보시 천도제**

한국병의 · 퇴마 · 최면연합회본부  
한국근본불교조계종총무원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NAVER **Do**u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포교원(금)안내**

- ◆ 위치: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재
- ◆ 화명지하철역 1분거리 ◆ 3층 50평
- ◆ 가액: 전세 2천만원 월 55만원
- ◆ 시설비 1천만원

010-9229-3801